

“나 잡아봐~라” 할 수 있는 대한민국

경제 view &



황철주

주성연지니어링 대표

세계적으로 성공한 애플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는 모두 벤처 기업이다. 왜 한국에서는 이러한 기업이 나오지 않느냐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

사실 애플 아이폰에 들어가는 부품이나 구글이 자랑하는 포털 서비스, 검색엔진, 혹은 프로그램 등 기술적으로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한다. 그럼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도 지금껏 한국에 이러한 세계적인 기업이 존재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문제의 해답을 찾아가다 보면 항상 그 끝에는 ‘사람’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대한민국만큼 경쟁력 있는 사람이 많은 나라가 또 어디에 있겠는가? 그러나 왜 그 많은 잘난 사람들 중에 스티브 잡스처럼 상상하고 연구하고 마케팅하는 CEO는 없는 것인가?

어쩌면 기존 제품을 모방해 발전시켜 나가야 했던 추격자적 위주의 산업과, 이를 위해 대기업 위주의 상상 협력 개발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던 경영환경에서는 당연한 결과였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워크맨으로 대변되는 일본의 기술력에 맞서 MP3라는 획기적인 제품으로 시장의 판도를 바꿨고, 수많은 벤처기업의 노력으로 휴대전화 강국 코리아를 만드는 등 새로운 사업의 장을 개척한 저력도 보여주었다.

사실 아이폰이나 구글 검색엔진은 유형의 투자를 늘려 만들어진 게 아니다. 아이디어와 창의력에 대한 무형투자가 일궈낸 결과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처럼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세계적 명품으로 만드는 ‘창조형 기업’의 도전이 활성화되어야만 한다.

이런 선진국형 ‘창조형 기업’에서 고객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창조적 명품’을 300개 정도만 만들 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세계 제1의 산업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선진국을 따라 하는 ‘캐치업’ 전략의 나라가 아닌, 우리 스스로 모델을 만

드는 ‘나 잡아봐라(catch-me)’ 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진 나라 말이다.

이를 위해 특정 산업에 집중한 ‘개량 성장형 산업’이 아니라 탄탄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는 ‘창조적 산업’의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 자금, 기술, 마케팅의 상호 융합적인 토대 위에 훌륭한 아이디어 하나만 있으면 기업을 창업, 성장, 영속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창조형 창업’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

그렇아만 세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벤처의 탄생을 가로막는 산업 환경과 벤처기업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선도 조금씩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산업성장의 유일한 해결책은 한국이 아니라 세계시장이다. 중소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마음껏 경쟁할 수 있도록 성장성에 기반을 둔 앞서가는 수출 금융지원 정책과 여러 범국가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누군가 “은퇴를 10년 남겨둔 중년 가정이

뒤를 돌아보니, 그를 이어 집안을 먹여살릴 자식은 보이지 않는 심장”이라고 우리 IT 산업의 위기상황을 묘사했다. 그러나 이미 우리에게 대한민국 미래의 책임을 지고 있는 벤처가 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패기 있게 도전하는 ‘창조형 벤처기업’에 애정과 관심을 쏟아 주자. 분명 열심히 노력만 하면 된다는 가치에 익숙했던 대한민국 기업 조직에 창의성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심어 명품 상품을 만드는 명품 기업으로 성장시켜야 할 것이다. 흔히 갖든 창조적 명품을 만들어 내는 것이 바로 벤처의 정신이며, 그러한 벤처가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다.

◆황철주(51) 시장은 1993년 반도체 장비 업체인 주성연지니어링을 창업했으며, 벤처기업협회장도 맡고 있다. 현재 회사가 어려워졌지만 이를 잘 극복해 중앙일보 인재 시리즈 ‘틴아라운드-위기 닮고 선 기업들’에 소개되기도 했다.

아이폰, 구글 검색엔진 같은 명품
우리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어
번뜩이는 아이디어 팍팍 밀어줄
벤처 지원 시스템만 갖춰진다면